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문

-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갑시다 -

2008년 11월 12일
제189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최 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2008년도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예년과는 또 다른 감회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로 취임한 후, 열한 번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기 때문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10여년을 소외와 낙후로 점철된 강원도를,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초석도 다졌고, 진전도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하지 못했던 일들은 하나라도 더 디딤돌을 놓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봅니다.

오늘의 강원도가 있기까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변함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일에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금년은 전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새 정부와 시작을 같이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던 일련의 일들로 인해 세계경제가, 국가경제가,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유가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등으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원도민들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일에 분연히 나서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도민주 청약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성원은 감히 예측할 수 없었던 참여와 열정이었습니다.

베이징올림픽에서의 강원도출신 선수들의 활약과 기개는 강원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도정의 모든 부문에서 보다 진일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S전선, 미국 바텔연구소 분소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생산량이 전국 최대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으로 농어촌 관광객 1,500만명을 유치해서, 1,80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전국 최고, 최다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DMZ관광청**을 설립하였으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문화·환경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지표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 고속화철도, 로스쿨·LNG생산기지 유치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과제들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도내 인구가 작년 말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9월말 현재 4,6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 앞에는 어려운 경제국면과 함께 수도권규제 완화 등 강원도의 생사가 걸린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임시적으로 처방할 경우, 악순환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길게 보고 항구적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이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적 완화'**라는 기조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의존재원이 아닌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중심을 둔 세제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행정 체제 및 구역 개편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이기에 또 다른 갈등과 국력소모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지방의 존립, 지방의 가치, 지방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세밀한 분석

과 전략을 세워서, 강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든 지방의 주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위기'뒤에는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거쳐 **「녹색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정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온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찍이 이러한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전략도 마련하고 기반도 구축해 왔습니다.

3각 테크노밸리 전략을 통해 도내 산업구조를 **친환경 첨단지식산업구조**로 전환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환경·문화·복지가 어우러지는 녹색성장을 통해 「생명·건강산업 수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 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9년도 도정운영의 기조는「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에 두고,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두는 데 도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역별 특성화전략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해서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생명·건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환경·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토탈 세일즈 강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내년도의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규모 우량기업 5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정착할 때까지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중인 산업단지 32개소중 내년까지 8개소를 완공하고, 17개소를 착공하는 한편, 대규모 산업단지 1~2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기업사랑 스폰서제 등 기업 '氣 살리기' 와 강원마이스터, R&D전문인력 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우수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문화·관광공간으로 재창조하여 특성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관광레저시설 유치,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반듯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지식,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플라즈마, 방재산업을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도 전역을 **「생명·건강 산업의 광역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태양광도시, 탄소시장 개척, 백두대간중심 그린존 프로젝트 추진 등 기후변화의 위기를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과 연계해서 LNG 제4생산기지, 삼척종합발전단지 등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 10주년이 되는 내년도를 「강원관광 재도약의 해」**로 삼아, 강원관광을 선진화·소득화 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관광 자원화하고, 도 전역을 **「관광·레저·휴양·스포츠 특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소길(O2) 강원 3,000리, 동해안 낭만가도 등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DMZ 관광청을 중심으로 DMZ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휴양리조트, 세계적 브랜드의 테마파크 유치, 관광R&D글로벌파크, 설악권 재개발 등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강릉단오제, 춘천마임축제,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동강사진축제 등을 세계적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중화권, 일본, 동남아, 이슬람문화권 등 타깃시장별 맞춤형 대세일즈 등 관광마케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조기에 진입시키겠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및 전국적 공급망 확충 등 친환경생명농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한우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고, 인삼, 약초, 산채 등 강원도 대표 10대 농·특산물을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하여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수시책인 **그린투어리즘,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특성화 전략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농어촌의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숲길, 휴양림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청정산소를 집중 세일즈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유일의 해양심층수자원센터를 건립하여 한해성자원의 특화기반을 구축하고, 어촌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복지·환경·문화」분야에 대한 맞춤형 시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변함없는 기조아래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강원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의료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행복나눔장터 해피24U'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과 참여의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생애주기별 관리, 안전한 식생활 보장 등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보다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방과 후 아동 보호 등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사회복지예산을 2010년까지 도 예산의 25%대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문」은 청정 환경을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가치 자산으로 더욱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흙탕물 저감대책, 생태하천 복원 등을 주도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마을앞 도랑 살리기를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평화생명동산 조성을 완료하고,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DMZ의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새로이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문」은 강원도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견지하면서, 문화를 산업화, 자원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마무리하고, 1사 1문화재 지킴이 운동, 목재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시군 1테마 박물관·미술관 건립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첨단문화산업단지 등 지역문화산업의 성장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동북아시대를 대비, 복합물류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도내「2시간대 생활권」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 및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대응하는 핵심전략을 구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적, 국제적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되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강원도는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에너지 수입원과 운송로의 다원화를 통해 물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강원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주~강릉간 고속화철도, 강릉~저진간 철도연결, 경춘선복선전철 및 동서고속철도,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연장 등 도내 핵심 교통망이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어디서나 30분내 광역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간선도로망과 터널화·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집중 투자를 통해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환동해 거점항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해항, 속초항을 국가 '주요 항'으로, 삼척호산항은 국가관리 '지정항만'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발전의 근간이 되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들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를 잇는 **수도권배후 신기업축**, **동해안 발전축**, **백두대간 생태축**, **접경지역 한민족평화축**,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남부권 고원관광휴양축** 등 큰 틀의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성장거점 역할을 하게 될 대규모·주요 프로젝트 등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광역권, 중부내륙광역권, 폐광지역, 접경지역에 대한개발계획을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연계시켜, 실행력이 확보되고 본격적으로 착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강원 사람 키우기, 강원인구 늘리기를 조직적, 대대적, 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의 시니어낙원, 중·대규모의 시니어커뮤니티 조성 등 도시 및 은퇴자의 유입촉진과 소비창출을 위한 정주기반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 철원 평화산업단지, 국제교육연구자유도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강원도발전을 견인할 과제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마련한 **'DMZ의 평화적 이용관리'**를 위한 구상을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한국DMZ평화포럼을 국제적 규모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점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의 집중적인 정비 등 예방중심의 재해·재난대책과 법질서를 확립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각종 인허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 등 강원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90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 8,814억원 보다 6.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내 국책사업도 금년(3조 998억원)
보다 20.7%가 증가한 3조 7,41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 출신·도 연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결과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2시간대 생활권 완성** 등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2조 4,597억원)보다 8.2%가 증가한 2조 6,620억원 규모로

-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림해양수산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6.8%인 **9,779억원**
-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3.3%인 **1조 1,531억원**

◆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0.3%인 **2,746**억원

◆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9.6%인 **2,5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5%가 감소한 4,070억원 규모로

◆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84억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 회계 1,71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0억원, 지역개발 기금(공기업) 특별회계 2,1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새해 예산안은 자체세입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경제·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8월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를 비롯한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최 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 강원도는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강원도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의 주변부적 존재로 치부되던 강원도가 이제 몰라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돌던 고갯길에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기업의 불모지대에 첨단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열리고 있고, 강원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탁마(切磋琢磨)’라고 옥이나 돌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만,

통합된 도민의 힘으로 진력해 나간다면 강원도라는 보석이 반드시 전 세계에 그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개척해 나갑시다.

저 또한 10년 후, 100년 후의 발전된 강원도의 미래를 그려보며, 그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초지일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300만 내외 도민여러분께서 조언자가 되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신뢰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 김 진 선